서울주보

제2565호
2025년 7월 6일(다해)

연중 제14주일

성인, 순교자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의 구약 성조들(부분)
프라 안젤리코(Fra Angelico, 1395-1455)
1423-24, 나무에 템페라, 31.9x63.5cm
내셔널 갤러리, 영국 런던

입 당 송 | 시편 48(47),10-11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제1독서 | 이사 66,10-14ㄷ

화 답 송 | 시편 66(65),1-3ㄱㄴ.4-5.6-7ㄱ.16과 20(◎ 1)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 온 세상아, 하느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 그 영광을 노래하여라. 영광과 찬양을 드려라. 하느님께 아뢰어라. "당신이 하신 일들 놀랍기도 하옵니다!" ◎

○ "온 세상이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을 노래하게 하소서. 당신 이름을 노래하게 하소서." 너희는 와서 보아라, 하느님의 업적을, 사람들에게 이루신 놀라운 그 위업을. ◎

○ 바다를 바꾸어 마른땅 만드시니, 사람들은 맨발로 건너갔네. 거기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기뻐하네. 그분은 영원히 권능으로 다스리신다. ◎

○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들아, 모두 와서 들어라. 그분이 나에게 하신 일을 들려주리라.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당신 자애를 거두지 않으셨으니, 하느님은 찬미받으소서. ◎

제2독서 | 갈라 6,14-18

복음환호송 | 콜로 3,15.16

◎ 알렐루야.

○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 풍성히 머무르게 하여라. ◎

복 음 | 루카 10,1-12.17-20<또는 10,1-9>

영성체송 | 시편 34(33),9 참조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정순택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s://cc.catholic.or.kr

cpbc 가톨릭평화방송·평화신문 | 라디오 FM 105.3MHz · 케이블 TV 지역마다 다름 | SKYLIFE 184번 | GENIE TV 231번 | B tv 297번 | U+ tv 274번

생명의 말씀

성령 안에서 가까이 와 있는 하느님의 나라

구요비 욥 주교 | 서울대교구 총대리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갑작스러운 선종과 새로운 교황 레오 14세의 탄생이라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건을 겪으며, 우리는 모두 이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활동을 체험하는 은총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은 새 교황님께서 당신의 칭호를 프란치스코 2세로 정하실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뜻밖에도 레오 14세로 정하셨다는 것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새 교황님께서는 노동헌장이라고도 불리는 회칙 〈새로운 사태(Rerum Novarum)〉를 반포하신 레오 13세의 시대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계승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즉위 미사 강론 중 전임자이신 레오 13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오늘 우리도 이렇게 물음을 던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이 세상 안에 놀라운 힘을 발휘한다면 온갖 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회복되지 않겠는가?"(〈새로운 사태〉 19항)

새 교황 레오 14세의 탄생 소식을 접하며 저는 시메온의 기도를 바쳤습니다.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루카 2,29-30) 이렇듯이 성령께서는 온 누리에 늘 새로움을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이런 성령의 현존은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까이 다가온 하느님의 나라'(루카 10,9 참조)를 발견하도록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 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외아들로서, 죄로 상처 입은 인류와 온 세상을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강생의 신비 안에서 하느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느님의 나라이십니다! 당신의 신성(神性)을 온전히 비우시고 인성(人性)을 취하시는 가난과 겸손 안에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토록 길을 열어 주셨으며, 이 새로운 피조물(갈라 6,15 참조)에 의해 "새 하늘과 새 땅"(묵시 21,1)의 도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당신 구원 사업의 협력자인 제자와 사도로 불러 주십니다.

이 주님의 협력자인 사도로 사는 삶은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십자가의 길입니다.(갈라 6,14 참조) 예수님의 사도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면서 숙명처럼 받아들여야 할 십자가의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오늘 복음이 단초가 됩니다. 예수님은 당신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물질적인 가난의 삶을 요구하십니다. 복음적인 가난이란 온전히 주님을 믿고 하느님의 섭리하심에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 맡겨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루카 10,3-4)

성화 해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이 작품에서 모든 인물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윗줄에는 구약의 인물들이, 가운뎃줄에는 남성 순교자들이, 아랫줄에는 여성 순교자들이 줄지어 있습니다. 순교자는 아니지만, 맨 앞에 라일락색 옷을 입은 안나(성모님의 어머니)가 등장하며, 윗줄에서 유일한 신약의 예언자인 세례자 요한은 화면 밖의 우리를 바라봅니다. 순교자와 성인들은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진 양들처럼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실천하였습니다.

오주열 안드레아 신부 | 삼양동(선교)성당 주임

사탄아, 물러가라!

윤경호 바오로 | 배우

이런저런 사정으로 여기저기를 떠돌던 우리 가족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처음으로 '정착'이란 걸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시장 근처에서 식당을 하시게 됐는데, 너무나 바빠 저와 제 동생을 챙길 여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저희 형제만 집에 두기에도 불안하셨던 어머니께서는 특단의 결정을 하셨습니다. 저희 형제를 하느님께 맡기기로 말이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결정은 아주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느님께서 무탈하게 잘 지켜주고 계시니까요.

저는 금세 성당에 빠져들었습니다. 어린 제 눈으로 봐도 성당 밖은 시끌벅적하고 그야말로 전쟁터인데, 성당 안은 고요하고 고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인 듯한 분위기가 인상적이었고, 신부님과 수녀님의 모습이 평온해 보여 좋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바오로'라는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지금까지도 제 인생에 가장 소중한 친구인 '베드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오로와 베드로는 성당에서 거의 살다시피 했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제가 잠시 유혹에 흔들린 일이 있었습니다. 친구의 꾐에 넘어가 오락실의 세계에 눈을 떠 버린 겁니다. 저에게는 어머니께서 손에 꼭 쥐어주신 헌금도 있겠다, 성당에 다녀왔다고 하면 만사 오케이인 알리바이와 저를 향한 어머니의 굳은 믿음까지 있었습니다. 오락실에 안 갈 이유가 없었죠.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니 거짓말도 늘어서, 주일학교가 끝날 때쯤에 성당 앞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성당 친구들과 어울려 집으로 가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베드로는 거짓말을 위해 성당에 오는 저를 매우 따가운 시선으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이 저의 마음을 찌르던 어느 날, 베드로는 저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탄에 물든 놈! 사탄아, 물러가라!" 지금 생각하면 참 귀엽고도 웃음이 나는 외침이지만 당시에 저에게는 큰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이후, 죄책감에 마음이 괴로웠던 저는 과감히 사탄을 물리치고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 곁으로 다가갈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미사는 시작됐는데 성전 뒤에서 쭈뼛대고만 있는 저를 수녀님께서 발견하시고는 "바오로야, 이리 와."라고 불러 주셨습니다. 그러고는 저를 성가대석 뒤쪽 외딴곳으로 데리고 가셔서 "잘 왔어."라고 하시면서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따스한 품에서 얼마나 꺼이꺼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 안에 잔뜩 쌓였던 불편한 마음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고 하느님께 용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신앙심이 뭔지는 몰라도 이렇게 나를 언제든 받아주는 곳이라니! 그날을 계기로 저는 성당이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오락실의 유혹에 '사탄아, 물러가랏!'이라고 큰 소리로 외칠 수 있을 만큼요.

▶ 온라인 서울주보 # 5분 인터뷰
영상이 궁금하시면
큐알(QR)을 스캔해 주세요!

글·구성 서희정 마리아 작가

사랑의손길
: 성심농아재활원

성심농아재활원 아이들에게 든든한 울타리를 지어 주세요

"수녀님, 바닥이 너무 차가워요…."

오래된 장판이 들뜨고 갈라진 자리에서 숙제를 하던 민아(가명, 10세)는 손바닥으로 냉기가 도는 바닥을 두드리며 조심스레 불편함을 전합니다. 쉽게 들을 수도, 말을 할 수도 없는 민아는 눈빛과 손동작으로 의사를 전합니다. 수어로 전한 이 짧은 표현은, 민아가 살고 있는 방이 얼마나 낡고 오래되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심농아재활원은 1955년 청주교구에서 설립한 청각·언어 중복장애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농아 전용 생활 시설입니다. 농아 아이들을 위한 시설은 전국 2,000여 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그 수가 적습니다. 현재 이곳에서 생활하는 44명의 아이들은 매일 아침 수어로 인사를 나누고, 낮에는 일상생활 훈련과 자립 지원 교육을 받으며, 저녁이면 친구들과 선생님과 손끝으로 대화를 나누며 하루를 마칩니다. 이곳은 아이들이 들리지 않는 세상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집이자 든든한 울타리입니다.

하지만 1982년 증축 이후 40년 넘게 사용한 건물은 심각하게 노후화되어, 최근 시설물 안전 등급 평가에서 '미흡'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반이 내려앉은 벽에는 균열이 생겨 커다란 금이 가고, 뒤틀린 창문 틈 사이로는 찬바람이 스며듭니다. 실내 장판은 갈라져 콘크리트가 드러나 있고, 낡은 옷장은 경첩이 빠져 쉽게 여닫기조차 어렵습니다. 선생님들은 아이들이 낡은 시설에서 뛰어놀다가 다치지 않을까 늘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심농아재활원을 안전하게 수리하고 유지하는 일은 농아인 아동들의 삶과 배움의 기반을 지키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성심농아재활원은 국가 보조금과 약간의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해진 예산은 자라나는 아이들의 식비와 생활비, 프로그램 운영비로 쓰기에도 부족하여, 40년이 넘은 낡은 시설의 수리는 차일피일 미뤄 왔습니다. 이제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막막할 따름입니다. 우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본관 일부를 철거하고 구조를 보강하며, 장판과 낡은 가구를 교체하는 데만 약 6,000만 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재활원의 재정 상황으로는 엄두를 내기 어렵습니다. 수녀님과 선생님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맨발로도 안심하고 뛰어다닐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기를 기도하며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하루하루를 차디찬 바닥과 불편한 건물이 아니라, 안전하고 따뜻한 돌봄 속에서 꾸는 꿈과 희망 속에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모이면, 차가운 바닥이 따뜻하게 수리되고, 금이 간 벽은 사랑으로 메워져 아이들이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보금자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안전한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의 울타리를 짓는 일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 주세요.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5-803-271075 (재)바보의나눔

7월 5일~8월 1일까지 위의 계좌로 후원해 주시는 후원금은 **'성심농아재활원'**을 위해 씁니다.

(재)바보의나눔은 하느님의 종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보여주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나눔 정신을 이어가기 위해 2010년 설립된 전문 모금 및 배분 기관(특례기부금단체)입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재)바보의나눔**에서 발급합니다.
무통장 입금 후, 아래의 방법으로 신청해 주세요.

기부금 영수증 신청
① **우측 QR코드 입력**(www.babo.or.kr/hand)
② **전화 신청:** 02)727-2507 (재)바보의나눔

기부금 영수증

서울주보 홈페이지(https://cc.catholic.or.kr)에서 지난 사연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손길」은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재)바보의나눔'이 함께하는 국내외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국내외 가톨릭 사회복지 단체를 후원합니다.

신앙생활은 꼭 필요합니다!

조한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유토피아'(Utopia)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톨릭교회의 순교자이자 성인이시고, 정치가이자 법률가였던 토마스 모어가 동명 소설 제목으로 쓴 단어입니다. u(없는) + topia(땅), 즉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세계, 지상낙원, 모두가 바라지만 '지금 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이상적인 사회'를 통칭하는 표현입니다. 이 단어와 반대로 '디스토피아'(Dystopia)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향' 내지 '암흑향'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서 그려진 사회가 대표적입니다. 이 사회 역시 처음엔 유토피아를 꿈꾸지만, 결국 폐쇄적이고 비인간적 공동체로 전락한 사회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개념에 빗대어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는 '헤테로토피아'(Heterotopia)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이는 여행지나 놀이동산처럼 일상을 벗어난 일시적 휴식 공간을 의미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를 현실 안에 그럴듯하게 꾸며 놓은 것을 말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종교는 일종의 헤테로토피아가 아닌가요?" 고단한 현실에서 그저 잠시 위로와 위안을 주는 곳이 아닌가 묻습니다. 한편으로 맞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원의 짧은 피정이나 여러 프로그램, 혹은 템플 스테이 등은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에게 영적인 휴식처가 되고, 잠시의 위안을 주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그렇지 않습니다. 수도원 내 피정의 집은 방문자에겐 헤테로토피아가 될 수 있지만, 수도원에 사는 사람에겐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구체적 장소입니다. 수도자(修道者)들은 세속에서 자신을 격리시킨 사람이고, 수도 공동체는 세속의 흐름에 맞선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느님 나라를 지향하지만, 눈에 보이는 이 땅에서 영적 투쟁을 하는 곳이 수도원이고, 신학교입니다. 동시에 그 여정에 실패하면 그곳은 디스토피아가 됩니다.

신앙이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공동체는 이 세상과 대조되는 사회, 대조사회(對照社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설교(마태 5-7장 참조)를 근본으로 삼아 세속적인 세상과는 구분되고, 하느님과 온전히 함께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지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그리스도처럼(imitatio Christi) 살도록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산다면 교회 안에서 유토피아를 맛볼 수 있을 것이고,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앙생활이 결코 평화 가득한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마르 5,34)라는 예수님 말씀처럼 하느님 은총과 사랑을 알아보고 응답하는 비결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줍니다. 올바른 신앙생활이 구원의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희망하기에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립니다."(로마 8,25)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저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요한 17,26)

임슬기 안젤라 | 청년성서모임

저는 유아세례를 받고, 어릴 적부터 자연스럽게 주일학교에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신앙은 점점 습관처럼 타성에 젖었고, 하느님의 존재를 믿었지만 그분의 사랑은 막연하게 느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20살 때 본당 주보에서 성서모임 그룹 모집 공지를 보았습니다. 평소에 성경을 읽어보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지만 쉽게 실천하지 못하고 미루고 있던 때라 좋은 기회라 여겨 성서모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서모임에서는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서로 나누는 시간을 보냅니다. 처음에는 성경을 나의 삶과 관련지어 생각하고 묵상하여 나누는 것이 낯설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고 공부할수록, 하느님의 사랑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하느님을 알고 있다고 착각했지만, 실은 그 사랑을 느끼려고 해본 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 속에서 하느님을 참되게 만나기 시작하자, 저 자신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거리를 두고 무심하게 대하던 이웃에게 예수님의 시선으로 다가가려는 마음이 생겼고, 매사에 감사할 줄 알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하느님의 사랑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제 노력이 아니라, 말씀 안에 살아 계신 주님께서 제 안에 일으키신 은총이라는 걸 느낍니다.

또한, 성경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지금 이 순간 제게 건네시는 사랑의 말씀이라는 걸 성서모임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저는 하느님을 머리로 아는 신앙에서 마음으로 느끼고, 삶으로 살아가는 신앙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글의 제목으로 쓴 요한 17장 26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드리신 기도의 일부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마음 안에 그 사랑이 깃들기를 간절히 기도하신다는 사실에 놀라웠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마음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지금도 제게 말을 걸어오시는 살아 계신 하느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저는 앞으로도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말씀 안에 머무르며, 삶에서 하느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합니다.

순교영성

7 담장 사이 비밀 통로

정민 베르나르도 | 한양대학교 국문과 교수

약방을 운영하던 최필제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서 교우들과 모임을 갖던 중, 포졸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을 그린 그림. (탁희성 화백, 절두산 순교성지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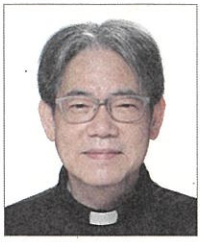
초기 천주교 집회는 이중 삼중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도심 집회는 쉬 발각될 염려가 크고 나쁜 뜻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도 있어, 조직이 한꺼번에 일망타진 될 가능성이 늘 존재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향해 열린 채로 새 신자 포섭을 위해 노력해야 했고, 이는 곧바로 무시무시한 탄압의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마을 구석진 집에 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면 당장 남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허허실실로 도심 한복판, 왕래가 빈번한 거리의 객줏집이나 약방 같은 곳에 집회 거점을 마련하여, 신자들만 은밀히 뒤채로 빼돌리는 방식으로 모임을 가지곤 했습니다. 서울의 주요 거점들이 모두 약방 중심으로 운영된 것은 이 때문입니다. 최창현, 최필공, 손경윤, 현계흠 등 무려 열 명의 약국 주인들이 포착됩니다. 또 접옥연장(接屋連墻), 문호상통(門戶相通)의 방식으로 불시의 임검에 대비하기도 했습니다. 접옥연장은 신자들이 서너 채를 잇대어 매입해 구역화하는 전략입니다. 문호상통은 집 담장 사이에 비밀 출입구를 만들어, 아랫집으로 들어와 윗집에서 집회를 갖는 방식입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나졸들이 아랫집을 급습하면, 윗집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옆집 담장에 난 문을 통해 달아나는 식입니다. 당시 유흥가였던 벽동(碧洞)과 인구 밀집 지역인 안국동 등에 이같은 형태의 안가(安家)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연좌제인 오가작통제(五家作統制)를 파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요.

정조의 서제 은언군 이인의 양제궁에는 고부간인 송마리아와 신 마리아가 살았습니다. 강완숙은 그 옆집에 홍익만 안토니오를 입주케 했지요. 주문모 신부는 홍익만의 집에서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한밤중에 감시의 눈길을 피해 비밀 통로를 통해 옆집으로 건너가 신앙을 전했습니다. 행랑채에는 천주교 신자를 세입자로 들여, 둘레를 신자로 에워쌌습니다. 황사영의 아현동 집은 조상의 위패를 모셨던 사당을 헐어 그곳에 신자 남송로를 입주시켰습니다. 그는 필공(筆工)으로 각종 성물 제작을 담당했던 듯합니다. 《사학징의》의 공초 기록을 보면, 황사영 집 인근이나 또 한집에 살면서 이른바 아현동 본당을 지키며 보좌했던 돌이, 육손이, 판례, 고음련이 같은 노비의 이름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사창동 인근 이합규의 교회 공동체도 그랬습니다.

한 번 모임을 가질 때마다 그들은 첩보 영화 찍듯이 비밀스레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신유박해로 교회는 한 순간에 와해되어 모두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황사영만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배론의 토굴로 숨어들었지요. 교회 재건의 실낱같은 희망조차 없던 그때 중국 주교에게 보낼 백서를 작성하던 그의 심경은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그는 무슨 마음으로 캄캄한 토굴 안에서 한자 한자 깨알 같은 글씨를 쓸 수 있었을까요?

이동훈(시몬) 신부님 선종



우리 교구 소속 이동훈(시몬) 신부님께서 지난 6월 20일(금)에 선종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는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1991년 사제품을 받으셨습니다. 반포·방학동·목5동·노원·면목4동 성당(현 용마산), 10지구(현 제10 송파지구) 교육 담당,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사목국 차장(상설고해사목부)(현 사목국 상설고해), 한국 레지오 마리애 서울 무염시태 세나뚜스 담당, 제주 엠마오의 길 연수, 가르멜 수녀원에 파견되어 사목하셨습니다. 2025년 6월 23일(월)에 장례미사를 거행했으며 용인 성직자 묘역에 안장되셨습니다.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50년 7월 7일 이여구 마티아 신부(53세)
- 1952년 7월 10일 정규량 레오 신부(69세)
- 1997년 7월 12일 정욱진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78세)

교구청 알림

하루일정 전국순례 접수 안내

때: 7월 19일(토), 7월 20일(주일), 7월 22일(화)
곳: 송추성당, 행주성당, 성 남종삼 요한과 가족 묘소, 황사영 알렉시오 순교자 묘 / **문의:** 02)2269-0413
신청: 7월 7일(월) 오전 9시부터 순교자현양위원회 홈페이지(www.martyrs.or.kr) 선착순 접수
회비: 1인 6만원(전화 및 문자 접수 받지 않습니다)

직장사목팀 소방사목 안내

1) 가톨릭 소방공무원 〈자기돌봄을 위한 1일 피정〉
2) 큰사랑 봉사회 회원 모집
대상: 기도 생활과 봉사에 관심 있는 분
3) 가톨릭 의용소방대 모임
대상: 현재 활동중인 신자
문의(접수): 02)727-2081 큰사랑봉사회 총무

명동대성당 영성교육 프로그램

오르간	매주(목 또는 토) 10시~16시 (개인 강습 + 연습) **회비:** 15만원(매월)	010-8508-9384 담당 강사 (문자 문의 요망)
전례 꽃꽂이	매주(수) 10시30분~12시(기초반) **회비:** 7만5천원(3개월 / 재료비 별도)	010-5302-4593 담당 강사 (문자 문의 요망)
	매주(금) 10시~13시(고급반) **회비:** 7만5천원(3개월 / 재료비 별도)	
	매주(금) 13시~14시30분(기초반) **회비:** 7만5천원(3개월 / 재료비 별도)	
수어	매주(목 또는 금) 19시~21시 **회비:** 12만5천원(6개월)	02)995-7394 에파타성당

서울대교구 혼인교리 안내

사목국 홈페이지(www.samok.or.kr) '혼인교리 신청' 통해 사전 접수 / 현장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
문의: 02)727-2070 사목국 교육지원팀

향심기도 소개강의

지도: 이승구 신부 / **대상:** 누구나
때: 7월 10일부터 매주(목) 14시~15시30분(4주간)
곳: 영성센터 A313호(구 계성여고)
회비: 1만원(4회) / **문의:** 010-4565-8898

2025 신구약 성경통독 회원 모집

강의: 조창수 신부 / **내용:** 신구약 성경 전체
때, 곳: 매주(월) 13시~16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명동) (온라인 라이브 동시 강의 / 재방송 1개월 수강 가능)
문의(신청): 010-8889-5425(문자) 가톨릭 성경&영성 아카데미

서울평단협 2025 희년을 노래하다! 희망콘서트 3

내용: 브뤼기에르 주교와 조선대목구 설정
때, 곳: 7월 19일(토) 오후 3시~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 **강사:** 조한건 신부(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
신청: 서울평단협 홈페이지(www.clas.or.kr) 공지사항 참고 / **문의:** 02)777-2013 서울평단협 사무국

제76차 피조물 보호를 위한 미사

대상: 기후위기와 생태환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과 후원회원
때, 곳: 7월 17일(목) 11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명동)
주례: 임현호 신부(환경사목위원회 부위원장)
강론: 이재돈 신부(환경사목위원회 위원장)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월례 미사

때, 곳: 7월 7일(월) 10시30분~11시30분, 가톨릭회관 3층 / **문의:** 02)921-5094, 010-3732-5093

1471차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때, 곳: 7월 8일(화) 19시, 명동대성당
금주의 '내 마음의 북녘본당': 서울대교구(북녘지역) 곡산 본당 / **문의:** 02)727-2420

'슬픔 속 희망찾기' 7월 유가족 월례 미사 안내

대상: 자살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분들만 참석이 가능합니다 / **문의:** 02)727-2495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때, 곳: 7월 19일(토) 10시(자비의 기도), 10시30분(미사 봉헌)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도현우 신부 서예전: 1전시실
2027 서울 WYD 주제 성구 묵상전: 2전시실
성미술 청년작가 공모전 선정작가 양승원 개인전: 3전시실
전시일정: 7월 4일(금)~13일(주일)

7월 생명위원회 미사 및 프로그램 안내

1) 생명을 위한 월례 미사
때, 곳: 7월 7일(월) 11시, 명동대성당 내 파밀리아채플
문의: 02)727-2352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 희망으로 가는 길(낙태된 영혼을 위한 기도와 미사)
대상: 낙태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때: 7월 12일(토) 오후 1시30분~4시30분
곳: 교구청별관 6층 소성당
문의: 02)727-2350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랑의손길 2024년 상반기(1월-4월) 모금 현황

후원에 대한 자세한 후기는 가톨릭사회복지회 홈페이지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후기 큐알(QR)

1월 사연

서울특별시중구장애인복지관
하얀 도화지 위에 꿈을 그릴 수 있게! 발달 장애인이 미술작가로 될 수 있게 함께해 주세요!
모금 기간: 2024년 1월 6일~2월 2일
총 모금액: 28,454,750원

2월 사연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케냐칸고야마을주민들에게건강과행복을채워주세요
모금 기간: 2024년 2월 3일~3월 1일
총 모금액: 79,160,867원

3월 사연

새빛공동체
'거부된 사람들'이 사는 집
모금 기간: 2024년 3월 2일~4월 5일
총 모금액: 134,370,335원

4월 사연

의정부교구 대건카리타스(고봉동커뮤니티센터) / 사회적 고립 가구 식생활 지원
찾아가는 환대의 집
모금 기간: 2024년 4월 6일~5월 3일
총 모금액: 50,029,533원

인준단체 알림

모임

ICPE '우리 삶의 참부모' 부모 피정
때: 7월 19일~20일 / 문의: 010-8724-4787
곳: 심조이 바르바라 피정의 집(인천)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7월 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9-1608
때, 곳: 매주(금) 19시~21시50분 / 김동주 은사자
곳: 역삼동성당 경환당(주차 가능) / 치유기도회

파티마 성모님 발현 피정
때: 7월 13일(주일) 오전 9시30분~정오 / 02)756-3473, 010-2759-3473 서울대교구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곳: 가톨릭회관 7층 / 강사: 홍성남 신부(서울대교구)

글라렛선교수도회 월례 소피정
내용: 영성강의, 묵상, 고해성사,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 13일(주일) 11시~15시, 글라렛선교수도회 본원(성북동) / 문의: 02)743-7026, 010-2625-8111

3지구 매월 셋째주(수) 무료 치유 피정 / 문의: 010-4444-1264
내용: 말씀치유기도, 찬양, 미사, 안수 / 점심 무료 제공
강사: 마진우 신부(대구 초전성당 주임)
때, 곳: 7월 16일(수) 11시~16시, 갈현동성당 지하강당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동반자: 김연수 신부(예수회)
때: 9월 25일(목) 17시~28일(주일) 16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3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토아올람 화요 치유 피정 및 1,000송이 묵주기도·미사
1)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7월 8일	김귀분 수녀	7월 13일	성시간·연도·위령미사

2) 1,000송이 묵주기도·미사
때: 매월 첫째주(월) 7월 7일 12시~16시30분
곳: 가톨릭회관 2층 205-2호 1강당

피아골 피정 성지순례 / 문의: 010-3712-8119

피아골 피정	7월 18일~19일, 8월 15일~17일
수도원 순례	10월 14일~17일
홍성남 신부	북해도 8월 25일~28일, 아키타 9월 8일~12일

파티마 평화의 성당 피정
때: 10시~14시(미사) / 문의: 031)952-6324

매월 첫 토요일 성모신심 피정·미사	8월 2일(토)
매월 13일 피정·미사	7월 13일(주일)
매주 목요일 기도·피정	강사: 이한택 주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피정
곳: 도미니코 피정의 집(주최, 횡성) / 010-3340-0201

효소 단식	7월 17일(목)~20일(주일), 8월 4일(월)~7일(목)
성경 완독	7월 25일(금)~8월 2일(토), 8월 15일(금)~23일(토)
카타리나의 집(개인·자체취사)	문의: 010-9715-1203

전대사 은총과 함께 일일 피정
주제: 그리스도의 고통(고통의 신비 1·2·3단)
때: 7월 13일(주일) 10시~16시(9시 미사 참석 가능)
곳: 스승예수제자수녀회(주최, 전철 4호선 미아역)
문의: 010-9742-3842, 02)984-4801

2025년 DMZ 평화의 길 / 문의: 031)941-2766
대상: 초3 이상 누구나(차수별 40명 선착순)
때: 1박 9월 13일(토)~14일(주일), 2박 9월 26일(금)~28일(주일)·10월 17일(금)~19일(주일)·11월 7일(금)~9일(주일)
회비: 8만원·15만원 / www.pu2046.kr
주최: 천주교 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메주고리예 기도 일일 피정·7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곳: 삼성산 피정의 집 대강당 / 문의: 010-3310-8826, 02)874-6346 삼성산성령수녀회·사랑의성령봉사회
1) 메주고리예 기도 일일 피정
때: 7월 7일(월) 10시~16시
2) 7월 토요 낮 치유 대피정
강사: 김성기 신부(예수회 호주관구)
때: 7월 12일(토) 12시~17시30분 / 미사·안수(중식 무료)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 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우도섬 포함 여름 피정 7월 18일~20일·7월 22일~24일(차귀도)·7월 26일~29일·8월 1일~3일·8월 7일~9일·8월 11일~13일·8월 15일~18일·8월 21일~23일, 자연순례 9월 1일~3일·10월 2일~4일, 추자도포함 제주 성지순례 9월 7일~10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예수고난회 서울 명상의 집 피정 / 문의: 02)990-1004

개방의 날	매월 첫번째(금) 8월 1일 10시~15시30분
대침묵 피정	7월 24일~27일(3박4일)
다네이영성수련(대침묵)	8월 5일~7일(2박3일)
회복탄력성 강화 피정	8월 8일~10일(2박3일)
단식 피정	8월 20일~24일(4박5일)
단체 피정(자체·위탁) / 개인 피정 가능	

예수마음기도 영성수련
곳: 문산 예수마음 피정의 집(주최)
문의(접수): 010-4906-5722, 031)953-6932

1박2일	8월 30일(토)~31일(주일), 10월 11일(토)~12일(주일)
3박4일	7월 24일(목)~27일(주일), 8월 21일(목)~24일(주일)
4박5일	7월 30일(수)~8월 3일(주일)
8박9일	7월 10일(목)~18일(금), 8월 7일(목)~15일(금)
40일	10월 14일(화)~11월 22일(토)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기도회
곳: 전철 2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환승 500·504·6512·5535 천주교성령봉사회관 하차 / 02)867-7900

주일기도회	(주일)	13시20분~17시	미사: 16시
월요밤기도회	(월)	18시30분~22시	미사: 21시
치유기도회	(수)	13시~17시	미사: 16시
로사리오기도회	(목)	13시~17시	미사: 16시
철야기도회	(금)	18시~22시	미사: 21시
생명축복기도회	(토)	14시30분~19시30분	미사: 18시
청년(루하)기도회	(금)	19시30분~21시30분	미사: 20시30분

베이비붐세대 피정 'lec n rec'
접수: 다음카페-베이비붐세대 피정
문의: 010-3173-2665 최영민(예수회)

구산성지 신앙선조 영성 피정
내용: 성경직해(신앙선조의 성경) 풀이, 미사 / 주제: 원수를 갚는 좋은 방법은? 주님 이름으로 참고 견딤이다
지도: 정종득 신부(수원교회사연구소장) / 찬양: 고영민
때, 곳: 매월 둘째주(토) 7월 12일 14시~18시, 구산성지
회비: 1만원 / 문의: 031)792-8540 구산성지 사무실

청년과 수도자, 함께 숨을 고르다-오세요
대상: 39세 이하 미혼 청년이면 누구나
때, 곳: 9월 20일~21일, 청소년수련원(천안)
접수: https://forms.gle/h4x1USeVBGsCsc7u9
문의: 010-6880-9605 한국 축성생활의 해 청년위원회(한국 천주교 여자 수도회 장상 연합회)

2025년 희년의 순례, 수도자와 함께하는 제주 산들순례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내용: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올레길에서 희년의 은총이 가득한 순례의 길을 동행합니다
참조: 본당 단체별 신청 시 특화된 프로그램 진행
곳: 제주 면형의 집 / 문의: 064)732-4702 면형의집

인천교구 지혜의 샘 프로그램
곳: 지혜의 샘(부천시 경인로 61-1 / 전철 1호선 중동역 5분거리) / 문의: 010-3248-9705
1) 성모님께 33일 봉헌 5차 감사 피정: 7월 14일(월)
강사: 이현종 신부, 한영임 회장
2) 성경 본문 속 희랍어 기초문법 무료 8주 과정
강의: 서한석 신부(가톨릭대 학부대학장)
때: 7월 7일~8월 25일 (월) 19시~21시

교육

수제 묵주 조각 교육(가톨릭목공예)
접수: cafe.naver.com/rosary10 / 문의: 010-5234-5044

성가발성 노래교실 / 문의: 010-9842-8818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강
곳: 시스띠나 음악원(주최, 신촌)

해외 가톨릭 사립학교 학생 모집
정규입학: 초5~고2 / 미국·아일랜드(단기 가능)
문의(예약): 02)2258-8983(oakinternational.co.kr)
주최: 그리스도레지오회 운영 해외학교법인

서울대교구 전례꽃꽂이 연구회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때: 9월 4일 가을학기 개강부터 매주(목) 15주
곳: 가톨릭회관 2층 205-3호 / 지도: 전호엽 신부
문의: 010-5236-5493, 010-5224-1108

도림동교육센터 가을학기 신입생 모집
대상: 남학생, 젊은 직장인 / 개인방, 개인욕실
가족·공부 분위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영성지도: 동아시아국제교류재단·오푸스데이
문의: 010-2554-1507 / dorimdongcenter.org

성 이냐시오 학교 야학 학생 모집
1년 동안 검정고시 합격을 위해 함께 공부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 선착순 접수, 수업료 무료
대상: 중졸, 고졸 검정고시 응시 희망자(성별·연령 무관)
때, 곳: (월~금) 19시~21시40분, 서강대학교 / 문의: 02)717-8248 교무실, 010-8366-4609 이지영 학생과장
교무실: 서강대학교 곤자가플라자(마포구 백범로 35)

토요 여행영어 5회(한국여성생활연구원)
언어학박사 배명숙 / 문의: 02)727-2471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인물 명강(2)
때, 곳: 8월 6일~27일 매주(수) 4회-14시~16시(강의)·13시20분(미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7층 체칠리아홀
회비: 8만원 / 75명 선착순 접수
문의(접수): 02)6364-2204, 010-3781-2204

8월 6일	인생은 우울과 외로움-E.호퍼&A.와이어스	이동욱 신부
8월 13일	인생은 희망없는 고통-F.칼로&K.콜비츠	
8월 20일	미술 속 의학	윤인복 교수
8월 27일	미술 속 치유	

예수회센터 가을학기 강좌
9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center.jesuit.kr)

(화)	서구문화 속 그리스도교 미술	박혜원 강사
(화)	성경대학-요한복음1	송봉모 신부
(수)	환시가 답하는 10가지 질문	홍기령 교수
(목)	구약성경 아카데미-예언서 해설	주원준 박사
(목)	성격장애와 영성생활	최지원 수녀
(금)	신의 선물, 음악의 희로애락	노애리 박사

미사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 미사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 문의: 02)753-8765
때, 곳: 7월 17일(목) 낮 12시, 가톨릭회관 3층 강당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와 성모신심미사
때: 둘째주(토) 7월 12일 10시~13시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문의: 02)727-2489

군종후원회 월례 미사·특강
특강: 박시용 신부 / 문의: 02)776-0457
때, 곳: 7월 7일(월) 14시, 국군중앙주교좌성당(전철 4호선 신용산역 1번 출구, 용산우체국 뒤 왜고개성지 내)

한국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곳: 7월 9일(수) 14시(미사),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 소성당 / 문의: 02)3673-2525 미사
7월 성서인문학 강좌는 방학으로 진행하지 않습니다

안내

남대문성당 '우리물터' 심리상담
심리, 정서(우울·불안), 가족, 개인상담
상담: 매주(목) 11시~ 16시 / 문의(예약): 010-5582-3562

봄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서울베네딕도 상담센터(서울베네딕도수녀회)
곳: 돈암동 / 국가지원 전문심리상담 제공기관
개인·가족상담, 모래놀이 상담 / 문의: 010-2199-3439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강남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삼양동 선교본당 재활용매장 '살림'
이민·유품정리, 의류·가방·신발·생활용품·가전제품을 기증 받음 / 환경을 살리고 이웃을 도움
기증 수거방문 기준: 2상자 이상 / 문의: 010-5751-3978

일원동성당 혼인미사 / 문의: 02)2226-2291
아름다운 성전과 카페, 리모델링을 통한 쾌적한 웨딩환경, 전철 3호선 대청역 2분 거리, 300대 주차
때: (토) 12시 / 홈페이지: www.myilwon.com

까리따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따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듯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9916-5798 노경덕 신부(상담자)

가톨릭뇌은행 뇌기증 희망자 모집
치매와 파킨슨병 등의 퇴행성 뇌질환의 극복을 위해 사후 뇌기증 희망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대상: 성인 누구나(만 19세 이상) / 문의: 02)2258-7660
수시 모집 / 관련기관: 과기부 산하 한국뇌은행
기관: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가톨릭뇌은행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전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참고(인근 성지): 갈매못 순교성지, 서짓골 성지, 청양 다락골 성지 / 문의: 041)934-7758 요나성당
방법: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yonaresort.modoo.at) 참조

청소년 언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종합심리검사
서울시립청소년드림센터는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가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청소년 특화기관입니다 / 대상: 만 9세~24세 청소년
내용: 언어상담, 매체상담(모래놀이치료·미술치료), 종합심리검사 / 문의: 02)2051-3743
곳: 살레시오 수도회(양천구 남부순환로54길 37)
회비: 언어상담 회당 5천원, 매체상담 회당 3만원, 종합심리검사 15만원(상담은 20회기 선납, 정부지원 취약계층 및 시설 거주 청소년은 무료 지원)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원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진애인 심리상담센터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ein.com) 토요상담 가능

전문 심리상담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강박적 행동, 부부, 가족간의 갈등, 대인기피 등
	마음투자 정부지원금 신청 해당기관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대인관계, 부부, 유학생, 사별, 우울, 영성상담
담당: 이찬 신부 / 문의: 010-8146-7654

떼제노래 기도모임·주일 미사 / 문의: 02)744-0840
대상: 하느님을 갈망하는 어른·청소년·청년
때, 곳: 매월 세번째(토) 7월 19일·8월 16일·9월 20일 15시 45분~17시45분, 햇살사목센터(주최, 혜화로2길20) 성당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신학대) 위생팀 직원 모집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성신광장-모집공고 참조 / 문의: 02)740-970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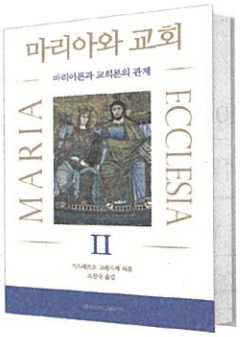
가톨릭출판사 직원 모집 / 문의: 02)6365-1829
서류: 입사지원서(홈페이지-본사양식)
모집 분야: 영업국 / 담당 업무: 영업
자세한 내용은 본사 홈페이지(www.catholicbook.kr) 직원 모집 메뉴 반드시 참조 / 이메일(cphhr@catholic.or.kr) 접수

창5동성당 사무장·사무원 모집 / 문의: 02)990-5684
분야: 사무장(계약직), 사무원(계약직) 각 1명
대상: 세례받은지 3년 이상된 신자로 사무행정, 회계업무, PC(한글·엑셀) 사용 가능한 분 / 7월 13일(주일)까지 방문 및 이메일(chang5dong8@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으로 회계 업무 가능한 분(더존 위하고 활용)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분야: 교육·홍보 담당 교구사무원 1명(계약직 /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 7월 13일(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 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예수수도회	수시(전화 상담 후)	수도원(서울)	010-7485-1964
예수의 까리따스 수녀회(서울관구)	7월 25일(금)~27일(주일)	까리따스 피정의 집(강원도 고성)	010-7542-7845
예수의꽃동네형제회자매회	7월 12일~13일	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음성)	010-9894-1973
작은예수수녀회	수시	수녀원(군자동)	010-8867-3217
착한목자수녀회	수시	수녀원(전철 7호선 건대입구역)	010-7197-1390 효주 수녀
천주교서울국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마리아와 교회 II

마리아론과 교회론의 관계

기스베르트 그레사케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584쪽 | 3만5천원
문의: 02)740-9718

이 책은 신앙인의 모범인 마리아와 교회의 관계를 총 5장에 걸쳐 다룬다. 초대교회부터 마리아와 교회는 깊은 연관이 있었으며,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서 마리아는 구원의 협력자이자 교회의 선재성을 드러낸다. 마리아론과 교회론의 균형 잡힌 이해를 돕기 위한 신학적 고찰서다.

신간

탈출기 II

최승정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376쪽 | 2만3천원
문의: 02)740-97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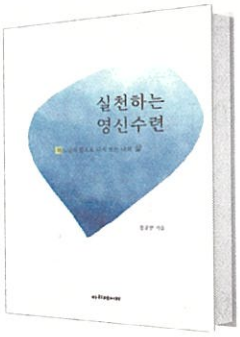
이 책은 구약의 핵심인 탈출기에 대한 주석서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형성한 이집트 탈출과 시나이 계약을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탈출기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하느님은 누구인가?"라는 물음을 던지며 구원의 하느님을 조명한다. 총 3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은 탈출기의 주요 사건과 율법을 문학적·신학적으로 해설한다.

신간

나의 작은 철학 사전

율리아 크놉 지음 | 마이케 퇴퍼비엔 그림
생활성서사 | 112쪽 | 1만6천원
문의: 02)945-5987

철학은 거창하거나 어려운 것도 아니며 아이들의 사고력과 논리력 성장, 그리고 훌륭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을 대상으로, 삶에서 누구나 마주하는 중요한 질문에 대해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배경지식을 전하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신간

실천하는 영신수련

정규한 지음
마리페이퍼 | 280쪽 | 2만5천원
문의: 010-3845-3045

성 이냐시오의 전통을 현대인의 일상에 맞게 풀어낸 이 책은 기도와 성찰, 묵상과 관상의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독자가 하느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응답하는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가도록 돕는다. 단순한 기도서가 아닌, 삶을 정돈하고 내면을 변화를 이끄는 실제적인 영적 훈련 안내서다.

연극

뷰티풀 라이프

때, 곳: (수·목) 14시, (금) 19시30분, (토) 15시, 17시30분, (주일) 13시, 15시30분
입장권: 전석 5만원
문의: 02)719-0988 (평일 11시~18시)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4명 70% 할인

연극 <뷰티풀 라이프>가 JTN아트홀 4관에서 오픈런(폐막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상시 공연)으로 공연된다.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통해 느낄 수 있는 행복하고 아름다운 순간들, 부부로 살아가며 생기는 사소함과 서로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한 다툼, 장애를 극복하는 순간 등을 다루며 이 시대의 복잡한 가정의 모습을 재미있게 풀어낸 연극이다.

뮤직쇼

세대공감 뮤직쇼 트롯열차

곳: CGV피카디리1958 · 피카디리홀
입장권: VIP석 14만원, R석 11만원
문의: 1544-6399 예스24
전화 예약 후 관람 당일 서울주보나 모바일의 본 안내문 지참시 주보 1부로 10명 30% 할인

1970년대~2000년대까지의 명곡으로 인생의 희로애락을 엮은 주크박스 세대공감 뮤직쇼 <트롯열차>가 8월 24일(주일)까지 CGV피카디리1958 · 피카디리홀에서 열린다. 강혜연, 김수찬, 김중연, 양지은, 홍자 등 인기 트로트 가수와 김민기, 장동혁 등 코미디언이 출연하여 웃음과 열정이 가득한 무대를 선사한다.

제2시대문 · 미포지구 대표본당
천주교연희동성당
http://www.yeonhui.or.kr
03727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로 64-14
본당사무실 : 323-4450~1, 4456 FAX : 336-2233

지구장신부 : 최성기(헨리코)
주 임 신 부 : 유시창(베드로)
부주임신부 : 백종원(마르코)
보 좌 신 부 : 최원영(스테파노)
연령회장 : 이범자(루시아) 010-6288-1683

주일 미사	· 토요일 : 오후 3시 (초등부), 오후 6시 · 주 일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 30분 (중고등부반대), 오전 11시 (교중) 오후 6시 (청년 20, 청년 30)	유 아 세 례	홀수 달 첫째 주일 오후 4시 30분
		혼 인 면 담	매 월 셋째 주 일 오후 3시
평일 미사	· 월요일 : 06시 화요일 : 10시, 19시 수요일~금요일 : 06시, 10시 토요일 : 06시	성모신심미사	매 월 첫째 토요일 오전 10시

"미소짓고, 인사하고, 칭찬하자!"

◉ 성모신심미사
· 일시 : 7월 5일(토) 오전 10시

◉ 성소후원회 미사
· 일시 : 7월 15일(화) 오전 10시

◉ 첫영성체 예식
· 일시 : 7월 12일(토) 오후 3시미사 중
※ 예식 후 304호에서 축하파티가 있습니다.

◉ 병자영성체
· 일시 : 7월 25일(금) 오전 10시 출발

◉ 남성 울뜨레야
· 일시 : 7월 20일(주일) 11시 교중미사 후 301호

◉ 여성 울뜨레야
· 일시 : 7월 22일(화) 오전 10시미사 후 304호

◉ 「이레밴드」와 함께하는 낭만음악회
한여름 밤, 낭만이 노래가 되는 음악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추억의 멜로디와 시원한 생맥주로 무더위를 잊고 쉬어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 일시 : 7월 12일(토) 오후 7시 ~ 9시
· 장소 : 지하식당

◉ 반디 주일학교 여름캠프
· 일시 : 7월 19일(토) ~ 20일(주일)
· 장소 : 강화도래미마을
· 문의 : 교감 김재호 니카시오 (010-9429-7106)
※ 무더운 여름, 하느님의 은총 속에서 안전하고 즐거운 캠프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바랍니다.
※ 봉사자 상시 모집합니다.
※ 7월19일(토) 오후 3시 미사는 초·중·고등부 통합미사로 봉헌됩니다.
※ 7월20일(주일) 오전 10시30분 미사는 없습니다.

◉ 청년 「이레밴드」 단원 모집
· 모집파트 : 드럼 및 연주자 전 파트 (상시모집)
· 연습일시 : 매 주일 오후 3시
· 문의 : 필립보네리 단장 (010-8276-0512)

◉ 2025년 3분기 전신자 영적 독서
· 권장도서 : 1. 광야에 선 인간
2. 평화안에 머물러라
· 신청기간 : 6월 29일(주일) ~ 7월 13일(주일)
· 신청접수 : 사무실

※ 하절기 전기 및 가스냉방 사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교리실 사용 후 주변정리와 함께 에어컨 및 각종 전열/전등 기구 소등 바랍니다. 또한 단체회합 후 개별만남은 1층 로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무금 책정 현황 (2025. 6.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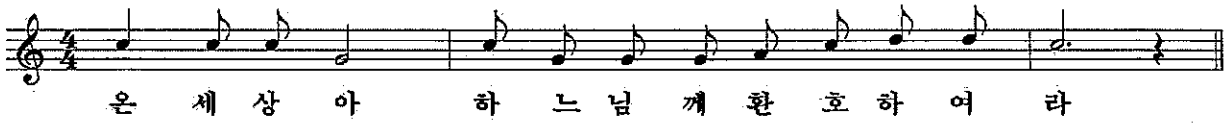
총세대	책정세대 (책정률)	납부세대 (납부율)	2024년 책정률	2024년 납부율
2,000	683 (34.2%)	644 (32.2%)	42.9%	41.6%

교무금 계좌번호	우리은행	137-04-110875

※ 교무금 자동이체 신청해서 납부 바랍니다. 교무금은 반드시 **교무금 책정자 이름**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연령회 감사헌금
故 박선하 요셉 상가 ..... 삼십만원
故 최일곤 마리아 상가 ..... 삼십만원

◉ 감사헌금 (6월 23일 ~ 6월 29일)
이명숙 ..... 삼십만원
이상걸 ..... 이만원
문지원 ..... 일십만원
김희태 ..... 오만원
김재균 ..... 오만원
곽선모 ..... 오천원
함영동 ..... 일만원
송명자 ..... 이십만원
박옥남 ..... 오만원
신옥분 ..... 삼만원
익명 ..... 삼십육만원
故 최일곤 마리아 상가 ..... 삼십만원

◉ 우리들의 정성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 무 금 11,552,000원
주일헌금 5,471,000원
교황주일 2차헌금 1,753,000원

입당	16	봉헌	212,340,210	성체	156,188,171	파견	63